

Face행위이론으로 보는 담화의 운영 방법

- 감탄사를 중심으로 -

조영호*
yhcho@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기 | 4. 담화 흐름에 보이는 Face행위와 「감탄사」의 기능 |
| 2. 「감탄사」란 무엇인가 | 5. 「감탄사」와 Face행위 |
| 3. Face행위이론으로 보는 「감탄사」의 정의 | 6. 결론 |

主題語: 감탄사(interjection), 면목(face), 완화요소(mitigator), 면목위협행위(face-threatening act), 면목보호행위(face-saving act), 면목중립행위(face-neutral act)

1. 들어가기

이른바 현대 논리 언어학, 특히 생성문법을 시작으로 하는 다양한 통사이론과 형식 의미론에서의 주된 연구테마는, 연구자 자신을 포함한 화자들의 직감을 바탕으로 하는 문장의 생성 원리와 명제의 분석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응」, 「글쎄」, 일본어의 「はい」, 「そう」 등의 감탄사는 문장의 구조와 명쾌한 관련성이 없다, 또는 의미론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담화표현과 내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그다지 연구대상으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담화에 있어서의 「감탄사」는 청자가 화자의 발화에 대해서 「감정의 표출」, 혹은 「동의」 등과 같은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담화의 흐름 속에서 사용되는 감탄사는 청자와 화자의 사이에 상호관계를 성립시켜줄 뿐만 아니라, 청자와 화자가 서로 어떻게 담화의 성립에 관계하고 있는가를 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ace¹⁾행위의 시점에서 보면, 「감탄사」는 화자의 face행위에 대해서 청자가 그 face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가를 나타내 주는 신호로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일본학과 교수

1) ‘face’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Goffman(1967)에 의한 것임. 그에 의하면 “face는 문화적인 면에 관계하지 않고 보편적인 개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음. 상세한 내용은 Goffman(1967)참조.

본 연구에서는 담화의 흐름 속에서 사용되는 「감탄사」를 몇 가지 예를 들어 face행위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감탄사」가 담화의 진행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중시하고, 그 기능을 제시하면서 face행위와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나아가 face행위로부터 파생되는 FS(face-saving), FN(face-neutral), FT(face-threatening)이라는 세 가지 시점으로부터 회화참가자에 있어서의 「감탄사」의 의미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감탄사」란 무엇인가

「감탄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日本國語大事典』(2001)에는 「自分の感動、詠嘆の感情、相手に対する呼びかけ、応答の作用を表した語(자신의 감동, 영탄의 감정, 상대에 대한 호출, 응답의 작용을 나타내는 말)」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이것들은 단독으로 문을 구성하지만, 문두(文頭), 문중(文中), 문말(文末) 등에, 다른 문절과는 직접성분관계를 가지지 않는 독립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신(1991)은 한국어의 「그레」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감탄사의 의미를 「추정의미(推定意味)」와 「구체의미(具体意味)」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감탄사」의 표현형식은 음성에 의한 「감탄사」의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행동에 의한 표현도 있다. 예를 들면 머리의 움직임이나 시선도 「감탄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넓은 범위의 언어행동과 비언어행동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감탄사」는 이른바 의미론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화자 중심주의의 언어학의 전통 속에서 하나의 확립된 현상으로서 청자중심의 연구 분야를 확립하는 것은 좀처럼 인정되지 않았다.

또 미국의 구조주의 및 초기의 생성문법은 문법이론의 연구영역을 문 레벨에 한정한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되기 때문에, 「감탄사」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언어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영역이 문 이상의 레벨인 담화를 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Halliday and Hasan(1976)은 「언어에는 문 내부의 구조를 토대로, 문 레벨을 넘어선 담화의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담화연구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또한, Reinhart(1983), van Dijk and Kintsch(1983), Kuno(1987)는 「담화분석에서는 어떤 언어학적 현상이 담화레벨에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화구조 그것이 문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래의 담화연구의 주된 시점은 화자의 행동에만 집중되어 청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영어에 관해서는 Kendon(1967, 1977), van Dijk(1985)가 주된 것이고, 그 이외에는 담화에 있어서의 청자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자세히 분석한 것은 그다지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담화분석에 있어서는 발화관리(speech management)의 요소로서 청자의 행동도 화자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에서 청자를 포함한 담화분석의 연구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회화가 화자와 청자 사이의 협력에 의해서 성립하고 있는 것인 한 그 화자와 청자의 양방의 행동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의 언어자체의 모습을 알 수 없다. 즉, face행위는 이러한 시점에 입각하여 담화의 기능과 의미를 분명히 하는 개념이다 볼 수 있다.

이하의 절에서는 「감탄사」현상에 대해서 담화는 그 회화참가자의 협력에 의해 성립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face행위를 토대로 「감탄사」를 분석하고, 보다 정확한 「감탄사」의 의미기능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Face행위이론으로 보는 「감탄사」의 정의

이 절에서는 face행위가 담화의 흐름 속에서 청자와 화자의 사이에 교환된다고 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감탄사」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로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회화참가자는 항상 어떤 특정의 집단에 존재하는 표준적인 규칙(rule)에 의해 확립된 이미지에 따라 자신의 행위의 기준을 생각하고, 언어행동을 행하고 있다.

그 때 회화참가자의 상호간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차이가 FTA (Face-Threatening Act. 이하, FTA로 함.)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화 속에서 자주 보이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논의에서는 청자와 화자 사이에서 손상된 상호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행해지는 언어행동이 보인다. 즉 회화참가자는 face를 조작하고 항상 자신과 상대의 face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또 담화의 흐름 속에서 회화참가자 사이에 행해지는 face의 교환은 때때로 청자와 화자의 face를 위협하는 이른바 FTA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상대와의 의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만약 담화 중에서 상대를 FTA해야 할 때는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혹은 의문표현에 의해 상대의 의견을 구하는 표현을 한다. 또 청자를 화자의 행위에 참가시킨다고 하는 표현에서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화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회화참가자가 서로의 face를 지키고, 담화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FTA를 중화하는 행위를 Brown and Levinson(1987)은 공손책략(politeness strategy)이라고 부르고, Meier(1995)는 수복행위(repair work)라고 부르고 있다.

Face행위는 사회적인 타당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넓은 틀에서 제공되는 경험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즉 FTA가 있을 때는 mitigator나 redressive한 표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연대감을 유지하고,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작용적인 발화를 성립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本を借りる」고 하는 의뢰행위를 생각해 보면, 상대에게 그냥 「本貸して!」라고 직접적인 의뢰를 하면 끝날 것을 일부러 「すみませんが、本貸していただけますか?」, 혹은 「本ちょっと貸してくださいね?」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데, 이것은 즉 화자가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빌리는 것」이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타당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즉 face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FTA를 수정하고, 상대의 face를 보상하거나, 완화시킨다고 하는 목적으로 「すみません」, 「ちょっと」, 「ね」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다.

「감탄사」는 일반적으로 회화참가자의 사이에 청자가 「감정의 표출」 혹은 「동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화자교대에도 관련해서 발생되고, 담화를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발화되고 있다. 그 때문에 face에 관한 「감탄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화의 성립에 관한 face행위를 어떻게 정의 하는가에 따라 「감탄사」의 의미기능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face행위이론」에 대해서는 曹(1998)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논의의 편의상 「face행위이론」을 정리해 보면 이하와 같다.

담화는 청자와 화자의 face의 교환에 기초하여 성립한다. 회화참가자는 서로의 face를 지킨다고 하는 전제를 세우고, 회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 장면, 맥락에 의해서 face의 교환을 조정하면서 담화를 성립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face행위」를 축으로 하여, 「감탄사」를 생각해 보면, 「감탄사」의 새로운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필자가 알고 있는 한은 사전적인 의미를 고찰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이른바 「감탄사」의 기능에 의한 정의와 「감탄사」의 표현형식에 의한 정의만 있을 뿐이다.

또 담화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언어행동, 비언어행동을 「감탄사」로서 볼 것인가를 판별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그것은 짧은 메시지라도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상대가 그것에 분명히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문법적으로는 긴 문장이라도 근본적으로는 「감탄사」와 같은 기능밖에 가지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그래, 그건 그래」 「そうね、そうだと思う」 등과 같은 표현은 「감탄사」로 보아도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감탄사」의 성격을 고려해서, 「감탄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발화 중에서 발화교대를 요구하지 않고 화자의 face를 유지하는, 혹은 위협하는 등의 어떠한 특성의 face기능을 가지고, 청자의 자유의지에 기초하여 사용되는 담화요소이다.

여기서 자유의사라고 하는 것은 화자로부터의 질문과 같은 적극적인 응답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감탄사」는 이야기의 흐름을 재촉하기 위한 자발적인 의지표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되어진 「감탄사」는 일상회화에서 아주 빈번하게 보이는 것이며, 또 「감탄사」는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화자와 청자의 협동작용의 과정을 뒷받침해주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감탄사」의 담화에 있어서의 기능을 조사하는 것은 담화에 있어서의 회화참가자간에 행해진 face행위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4. 담화 흐름에 보이는 Face행위와 「감탄사」의 기능

이 절에서는 face행위라는 관점에서 「감탄사」가 담화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고찰한다.

『日本語學キーワード辞典』(2001)에서는 「감탄사」가 어떠한 문맥에서 나타나는가를 고려해서 그 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① 감정(놀람, 영탄 등)
 - － ああ, おお, おや 등
 - － 욱, 터부어 등
- ② 의사
 - － 호출 : おい, こら 등

－ 응답 : はい, うん, いいえ 등

－ 머뭇거림 : えー, あー 등

또한 「日本語學キーワード辞典(2001)」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 「호출을 나타내는 것», 「응답을 나타내는 것», 「권유에 사용하는 것», 「인사에 사용하는 것», 「원망(願望)을 나타내는 것», 「말걸기», 「간투성(間投聲)」등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담화상에서 상대와의 사이에 「좋은 인간관계에로의 의향」과 「인간관계에로의 고려의 표시」라는 신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감탄사」의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는 「감탄사」의 의미론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담화의 흐름에 있어서의 face행위는 고려되어있지 않다. 즉 face행위이론이라는 관점에서 「감탄사」의 기능을 보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face행위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또 제2절에서 설명한 정의에 따르면 담화의 흐름 속에서 「감탄사」에 의해 관리되는 청자와 화자의 face의 상호작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화에 있어서의 face행위로부터 「감탄사」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하나는 face-saving행위로서 기능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face-threatening행위로서 기능하는 경우이다.

「감탄사」의 face-saving기능이란, 이른바 화자의 발화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면서 청자에 대해서 듣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동의 한다 등과 같은 의미기능을 가지고, 상대의 face를 보호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화자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하는 점에서, 그것은 모두 「감탄사」의 face-saving기능에서 파생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감탄사」의 face-threatening기능은 화자의 발화에 대해서 의문이나 부정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등의 의미기능, 혹은 「감탄사」의 사용빈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해서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 것을 나타낸다.

더욱이 이와 같은 두개의 큰 기능은 담화 중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미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기능은 담화의 face행위의 측면에 관련되어 있다. 즉 「듣고 있다고 하는 신호」는 청자가 화자에게 되묻는 기회를 미루었을 때에 사용되고, 청자가 화자의 확인을 필요로 할 때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신호」로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화자의 판단을 청자가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동의의 신호로서 해석된다. 즉 이와 같은 기능은 담화 속에서 주로 화자의 face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감정의 표출」을 할 경우, 「감탄사」는 큰 두 개의 기능을 양쪽 다 가지고 있다. 즉 「감탄사」가 감탄사나 웃음등과

동시에 나타나고, 보다 분명히 청자의 「감정의 표출」을 할 경우는 face-saving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상대에 대한 부정, 의문과 같은 의미기능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face-threatening의 기능을 하고 있다. 더욱이 화자교대의 개시 포인트로서 사용되고, 화자로부터 발화권을 요구하는 것과,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을 때 적당히 「うんうん」, 「はいはい」 등의 「감탄사」를 발화하고, “듣고 있다”, 혹은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face-threatening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주의해 두고 싶은 것은 이상의 여섯 개의 기능은 각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감탄사」는 동시에 몇 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다.

5. 「감탄사」와 Face행위

이 절에서는 담화의 흐름 속에서 사용되는 「감탄사」를 face행위이론을 이용해서 ① face-saving기능(이것에는 적극적으로 face를 존중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② face-neutral기능, ③ face-threatening기능(FTA기능)이라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감탄사」가 담화상 청자와 화자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face의 교환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것이 담화의 성립과 특징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고찰한다.

5.1 「감탄사」의 Face유지기능

담화내에서 상대의 face를 유지하고 또, 위협하지 않도록 청자가 face를 보상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이 「감탄사」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즉, 「감탄사」에는 상대의 발화를 재촉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혹은 동의하는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상대의 face를 유지하고 담화를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담화내에서 행해지는 face의 교환은 회화참가자의 상호 face에 관계되기 때문에 「감탄사」의 경우 사용되는 문맥 이외에서는 FTA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청자가 「감탄사」만을 이용해서 위협받는 자신의 face를 중화하는 것과 같은 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을시, 청자는 상대가 행한 FTA를 참을 수도 있고, FTA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face-neutral로 생각하기로 한다. 다음의 예를 참고로 보자.

(1) IP : あ あの それでは三枚でございますか?

(아, 저, 그럼 세장입니까?)

2Q : いいえ、二枚です。(아니오, 두장입니다.)

3P : あっあ、お姉様とお嬢様とおふたりで。

(아아, 언니와, 따님과 둘)

4Q : はい。(예.)

5P : ということですね。(이라는 얘기군요)

6Q : はい。(예.)

7P : そうでございますか。(그렇습니까?)

8Q : はい。(예.)

(『主婦一週間』1984 : 19)

(1)의 경우, 언뜻 보면 화자와 청자간에 face행위가 행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이것은, 4Q, 6Q, 8Q에서 사용되어진 「감탄사」가 상대의 의견에 따라가고 있다, 혹은 듣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로서의 기능을 하고, 화자의 face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화자도 5P에서는 문말에 「ね」「군요」와 같은 mitigator를 사용해서 상대의 동의를 구하거나, 7P에서는 「ございますか」「그렇습니까」와 같은 보상작용을 가진 표현을 사용해, 상대의 face를 saving하고 있기 때문에, FTA행위가 행해져 있지 않다. 즉, 이러한 담화는 face행위가 느낄 수 없는 neutral한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감탄사」는 이와 같이 청자와 화자의 상호 face를 서로 유지하는 것으로 face-neutral기능을 하며 담화를 성립시키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인토네이션이 있으면 face-threatening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상대의 face를 지키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담화인 쇼핑, 거래등에서의 담화는 이러한 형태의 담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담화의 흐름 내에서 「감탄사」를 사용함으로써 상대가 행한 직접적인 FTA에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2) 1X : 國語のテスト失敗したと思うから、あしたがんばろうと

思っ。 (국어시험을 망친 것 같아서, 내일 분발하려고..)

2Y : 何だ、やっちゃ失敗、やっちゃ失敗じゃないの。

(뭐야, 하는 것 마다 실패, 실패 아니야.)

3X : うん。(응.)

4Y : ひとつ、どんと来いってのはないの?

(뭐 하나 자신 있는 것 없어?)

5X : うん。(응.)

6Y : まあ、がんばって。(마, 열심히 해라.)

(『言語生活』No.278.1974 : 93)

(2)의 경우는 어머니(Y)와 아들(X)의 담화이다. 아들이 3X, 5X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탄사」는 어머니로부터의 FTA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어머니가 2Y에서 「失敗ばかりだ」, 혹은, 4Y에서 「どんと来いってのはない」와 같이 강한 의지의 강요에 의한 FTA에 대해 그것에 반발하지 않고 「母の言う通りだ」라는 의미로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하고, 「감탄사」를 사용해 어머니로부터의 FTA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역으로 말하면, 자신의 face를 위협하게 하여 상대의 face를 위협하지 않은 것이 face-saving으로서의 「감탄사」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face-saving기능을 가진 「がんばって」라는 말에 의해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에 의한 FTA에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납득하고 아들에 대해 FTA를 행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がんばって」라는 redressive한 표현을 사용해 아들의 face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화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FTA를 행하기 어려운 것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되어진다. 이 사실은 이 분석이 옳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만약, 아들이 3X와 5X에서 어머니로부터의 FTA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한다면 「でも」や「だって」와 같이 anti-FTA마커가 사용되어 face의 교환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적극적일 때는 언쟁과 같은 담화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상 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하지만」과 「그런데」와 같은 anti-FTA마커가 사용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감탄사」는 담화상의 의미기능뿐만 아니라 그 형식에 의해서도 상대에 대한 face의 유지 방법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대해 Tannen(1989)는 반복은 타 「감탄사」표현보다 상대의 발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나타냄과 동시에 상대에게 사실의 공유, 친밀감, 조화가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positive politeness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989 : 36-58). 또, Schegloff(1982), Nofsinger(1991:117)도, 상대 발화 일부분의 반복은 짧은 감탄사표현(예를 들면 ‘mm-hum’와 ‘yeah’와 같은 것)보다도 positive politeness를 강하게 전달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즉, 반복에는 무엇이 말해졌는지를 명확히 나타낼 뿐 아니라 담화에 있어서의 감정적인 동의를 강조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Brown and Levinson 1987:112-113).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문레벨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담화레벨에서 행해지는 청자와 화자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반복 쪽이 짧은 표현보다 politeness인지 아닌지는 담화의 목적과 face의 상호관계에 의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face행위이론의 face-saving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감탄사」의 표현형식과 관련성을 고찰한다. 예를 보자.

(3) [T: 司會者 S: 게스트]

1T:それで、どこを見ても藏間さんがいらっしゃるから。

(그래서, 어디를 봐도 쿠라마씨가 계셔서.)

2S:はあ。(아하.)

3T:突然、出ていらしたように思っただけですけども。

(갑자기 나오신 것처럼 생각했는데.)

4S:そうでもないです。もう業界やめて5年たちますから。

(그렇지도 않습니다. 벌써 업계 그만 둔지 5년이 지났으니까.)

5T:もう5年。(벌써 5년.)

6S:だから、そうですね。やっぱ相撲人気とともに出てきて。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스모인기와 함께 나와서.)

7T:なるほど。(과연.)

8S:そういう感じですね。(그런 느낌이네요.)

9T:なるほど。(과연.)

(「徹子の部屋」1993)

(3)의 경우, 다른 3가지의 「감탄사」가 상대의 발화에 대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2S의 경우는 non-lexical한 「감탄사」 표현이고, 5T는 반복 표현, 7T·9T는 lexical한 「감탄사」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사」는 face행위에서 보면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2S의 경우, 1T의 발화에 대해 듣고 있다는 신호의 기능을 가지고, 상대의 face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3T의 발화는 상대가 「突然、出て來た」라는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FTA를 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4S는 「そうでもない」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대의 FTA에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또 「もう業界やめて5年たつ」라는 이유를 사용해 상대에게 강요하고 있다. 거기서 5T는, 「もう5年」와 같이 4S의 발화 일부분을 반복하며 상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상대를 face-saving하고 있다. 그러나 6S는, anti-FTA마커인 「だから」를 사용해 자신의 face가 충분히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재차 상대의 FTA에 반발하며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고 있다. 거기서 7T와 9T는 상대의 face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なるほど」라고 적극적으로 face를 존중한다. 즉, face-saving의 효과가 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Lexical한 「감탄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face를 지키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보면, 「감탄사」는 다른 표현형식을 이용해 상대의 face를 saving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탄사」가 담화 내에서 항상 상대의 face를 유지하는 작용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절에서 「감탄사」가 어떻게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지에 대해 고찰하며, 어떠한 strategy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5.2 「감탄사」의 FTA기능

담화의 흐름 속에서 「감탄사」는 상대의 의견에 대해 반발 혹은 의문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탄사」에는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보자.

(4) 1X : c와 d는 닮았어.(c と dは似てるよ.)

2Y : 예? (ええ?)

3X : 절대로 뒷모습 닮았어.(絶対、後姿似てるよ.)

4Y : 정말? (本当に?)

5X : 헤어스타일이 절대로 닮았어.(髪型が絶対似てるよ.)

6Y : 하지만, 헤어스타일이나 키나, 살찐 정도가 다른데.

(でも、髪型とか身長の高さとか、ふとり具合なんか違う。)

(『言語生活』No.416.1986 : 80)

(4)의 경우, 2Y의 「감탄사」는 1X의 「c와 d는 닮았다」라는 의견의 강요에 대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 「예?」를 사용하여 상대에게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사」는 담화 내에 역접을 나타내는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와 같은 담화마커와 비교해, anti-FTA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3X는 자신의 의견을 좀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절대」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대의 face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여기서, 4는 2Y와 같은 non-lexical한 표현이 아닌, face-threatening기능을 가진 「정말?」라는 lexical한 부정적인 의문표현을 사용해, 상대의 의견에 대해 부정의문을 나타내고 상대의 face를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5X는 「절대 닮았다」라는 표현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상대의 FTA에 반발하고 자신의 의견을 더욱 강하게 상대에게 강요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6Y는 「감탄사」표현을 피해 상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anti-FTA마커인 「하지만」를 사용해 상대의 face-threatening에 반발하면서 더욱이 자기의 주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FTA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담화는 긴장상태에 있다. 즉, 어떤 주장에 대한 논의에 자주 나타나는 형태의 담화이다.

또, 「감탄사」에는 의도적으로 「감탄사」를 보내는 타이밍의 어긋남과 빈도 등을 이용해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즉, 「감탄사」를 적절한 때에 보내지 않는 경우와 함부로

「감탄사」를 보내는 경우 등은 상대를 FTA하게 된다고 예측되어진다.

한편 「감탄사」현상을 그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로써 생각한 것이 Erickson(1979)의 「LRRM」(Listening Response Relevant Moment)라는 개념이다. 「LRRM」라는 것은 청자가 회화 진행 중에 어느 순간에 「감탄사」를 보내면 그 행동에 커뮤니케이션상의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여기서는 회화의 흐름 속에서는 청자가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을 의지표시하도록 의무지어 진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은 화자가 내는 문맥상의 힌트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Ericksonは「LRRM」는 문맥상의 힌트를 통어상(예를 들면, 절의 구분)또는 음절상(인토네이션과 피치(음조))의 관점에서 나아가 몸의 움직임과 시선 등을 포함한 비언어행동의 관점에서 성격지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감탄사」는 화자의 요구에 대답하고 타이밍 맞게 보내는 것에 의해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LRRM」의 사고방식은 face행위로부터 「감탄사」를 보는 것에 의해 청자와 화자에게 「감탄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감탄사」의 타이밍은 「감탄사」는 화자가 발화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이에 언제 어디서든지 임의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된 시점에서 보내지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이것에는 청자와 화자의 face의 상호작용이 관계되어 있고, 서로 face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감탄사」는 청자가 함부로 보내도 의미 없고, 화자가 언제 「감탄사」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거기에 맞춰 타이밍 좋게 보냄으로서 비로소 face를 유지하는 「감탄사」로서 인정되어지는 것이다.

상대에게 타이밍 좋게 보내지 않고 함부로 「감탄사」를 보내는 혹은 「감탄사」를 보내지 않는 경우는 상대의 face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 예를 보자.

(5) 1W : あのう、何かの方法で先生にわずらわせないで

お月謝以外に積み立てをね、なさるとか。

(저, 어떤 방법이든 선생님 번거롭게 안하면서,

월사금 이외에 적립을 하거나.)

2P : ……。

3W : やっぱ、そのぐらいのことなんかしてさしあげないと。

(역시, 그 정도는 해 드리지 않으면...)

4P : ……。

5W : 先生に申し譯なくてね。(선생님께 죄송해서..)

6P : ……。

7W : 聞いてるの。どう思う?(듣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8P : そんなことする必要あるの?(그런 거 할 필요 있어?)

(『主婦一週間』1984 : 73)

(5)와 같은 담화의 경우, 상대의 발화에 대해 「감탄사」를 보내지 않음으로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는 혹은 상대의 의견에 흥미가 없다라는 자신의 기분을 전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자는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즉, face가 위협되고 있다는 것은, 7W에서 「聞いてるの。どう思う?」「듣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라는 직접적인 FTA표현을 사용해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감탄사」의 미사용은 상대의 face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된 발화는 일시적으로 FTA의 교환이 나타나는 담화로 발전하던지 한쪽이 이야기를 중지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상대의 발화에 대해 같은 「감탄사」의 표현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행위도,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 작용이 있다.

(6) 1P : あーでもね、あのこのさいやっぱりそのかかった経費分だけはね。

(아- 하지만말야. 저 요전에 역시 들어간 그 경비분만큼은말야.)

2Q : はい。(응.)

3P : あの 四千元か五千元になってもね。

(4천엔인가 5천엔이 되어도말야.)

4Q : はい。(응.)

5P : それでも高いとおっしゃるんだったらば。

(그래도 비싸다고 말씀하신다면.)

6Q : はい。(응.)

7P : その経費の分ぐらいは。(그 경비분정도는.)

8Q : はい。(응.)

9P : だって、先生にお礼もできないにしてもね。

(비록, 선생님에게 사례를 못하더라도.)

10Q : はい。(응.)

11P : かかった経費くらいは、しなくち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の

かしらね。

(들어간 경비정도는 해야하는 거 아냐?)

12Q : はい。(응.)

13P : どうしたのよ、「はい」ばかり言って、何か言ってよ。

(어떻게 된거야. 「응」라고만 하고, 뭐 말좀 해봐.)

14Q : ごめんね、他のこと考えてた。

(미안, 딴 생각 하고 있었어.)

(『主婦一週間』1984 : 78)

(6)은, 청자(Q)가 화자(P)의 발화에 대해 한결같이 「はい」라는 「감탄사」를 보내고 있는 경우이다. 이른바, 듣고 있지 않으면서 이해하고 있는 척의 신호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발화를 신중히 듣고 있지 않다는, 혹은 자신의 발화에 흥미가 없다는 신호를 청자로부터 느껴 자신의 face가 위협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화자가 13P의 발화에서 「どうしたのよ、「はい」ばかり言って、何か言ってよ」라는 FTA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상대의 같은 「감탄사」표현을 반복하는 것에 반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거기서 14Q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FTA를 중화하기 위해 「ごめん」이라는 사죄표현을 사용해 상대의 face를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 이때 청자는 13P의 발화에 대해서도 「はい」라는 같은 「감탄사」를 사용해 버리면 이야기는 중단되고 담화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된 「감탄사」는 상대의 face를 지킨다는 것보다 상대의 face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politeness strategy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Culpeper(1996)가 주장하는 impoliteness strategy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ulpeper(1996)에 의하면 impoliteness란, 청자와 화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의견의 부조화에서 기인하고 대화자의 face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face행위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즉, 담화는 항상 face의 교환에 의해 회화참가자끼리 서로 face를 유지하거나, FTA를 중화하거나 해가기 때문에 Culpeper가 말하는 impoliteness행위도 face의 교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담화중의 face는 「감탄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face행위이론에 의해 그 담화상의 기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face가 위협받는 담화는 경찰의 조사 시에 나타나는 특수한 예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이상, 담화 흐름속에서 사용되어진 「감탄사」를 회화참가자간에 주고받은 face행위라는 관점에서 고찰했다.

「감탄사」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것처럼 단순한 청자에게서 화자로의 「듣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전달기능뿐 아니라, 청자가 화자의 face에 대해 무엇인가의 face-effects를 가지는 담화마커이다. 즉, 「감탄사」는 화자의 face를 saving하거나, 위협하거나, 중화하거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기능 중에서도 「감탄사」에 의한 「감정의 표출」, 「발화권의 요구」는 상대의 face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듣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동의의 신호」는 상대의 face를 유지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 「감탄사」의 표현형식과 타이밍, 빈도 등도, 상대에 대한 face-effects의 하나의 방책으로 사용되어져 회화참가자의 face행위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것도 명확히 했다.

이러한 face행위에 의한 「감탄사」의 연구는 일상의 담화가 face의 교환에 의해 성립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參考資料】

본고의 자료는, TV의 대담프로, 회화자료, 잡지『言語生活』을 이용하였다.

- 「哲子の部屋」テレビ朝日(1993/11/1)
- 『主婦一週間の会話資料』(1984), 三勇社
- 『言語生活』No.278(1974), 筑摩書房
- 『言語生活』No.416(1986), 筑摩書房

【參考文獻】

- 신현숙(1991)『한국어 현상-의미분석』상명여대 출판부
- 國立國語研究所(1989a)『談話の研究と教育I』日本語教育指導參考書11, 大藏省印刷所
- 國立國語研究所(1989b)『談話の研究と教育II』日本語教育指導參考書15, 大藏省印刷所
- 佐治圭三(1956)「終助詞の機能」『國語國文』26, p.7, pp.23-31
- 曹永湖(1998)『Face行爲理論による談話マーカ－の研究』未公刊博士論文, 東北大學文學部
- 堀口純子(1988)「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聞き手の言語行動」『日本語教育』64
- ポリ－ザトラウスキー(1993)『日本語の談話の構造分析－勧誘のストラテジーの考察』TOKYO:くろくお出版
- 水谷修(1983)『話しことばの表現』筑摩書房
- 水谷信子(1985)『日英比較 話しことばの文法』くろしお出版
- 畠弘巳(1988)「外國人のための日本語會話ストラテジーとその教育」『日本語學』7, p.3
- メイナード・泉子(1993)『會話分析』くろしお出版
- Brown, Penelope and Stephen Levinson, 1987. Politeness :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ncy, Patricia M. Sandra A. Thompson, Ryoko Suzuki, and Hongyin Tao, 1996. The conversational use of

- reactive tokens in English, Japanese, and Mandarin. *Journal of Pragmatics* 26, pp.355-387
- Cook, Haruko Minegishi 1988. Sentential particles in Japanese conversation: A study of indexicality.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Culpeper, Jonathan 1996. Toward an anatomy o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5, pp.349-367
- Duncan, Starkey, Jr. and Donald W. Fiske. 1977. *Face-to-face interaction: Research, methods, and theor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rickson, Frederick, 1979. Talking down: Some cultural sources of miscommunication in interracial interviews. In: Aaron Wolfgang(ed.), *Nonverbal behavior: Applications and cultural implications*, pp.99-126, New York: Academic Press.
- Goffman, Erving,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Doubleday
- Halliday, M.A.K. and R.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Kendon, Adam. 1967. Some functions of gaze-direction in social interaction. *Acta Psychologica*, 26, 22-63.
- Kendon, Adam. 1977. Some function of gaze-direction in two-person conversation. In Adam Kendon (eds.), *Studies in the behavior of social interaction*, 13-51.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Kuno, S. 1987. *Functional syntax: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ynard, Senko K. 1993. *Discourse modality: Subjectivity, emotion and voice in the Japanese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s.
- Meier, A. J. 1995. Passages of 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4. pp.381-392.
- Nofsinger, Robert, E., 1991, *Everyday conversation*. Newbury Park, CA: Sage.
- Reinhart, T. 1983.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Kent: Croom-Helm Publishers.
- Schiffrin, Deborah.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egloff, Emanuel A. 1982. Discourse as an interactional achievement: some uses of ‘uh huh’ and other things that come between sentences. *Analyzing discourse: Text and talk (GURT 81)*, ed. by Deborah Tannen, 71-93.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Tannen, Deborah. 1984. *Conversational style: Analyzing talk among friends*. Norwood, NJ: Ablex
- Tannen, Deborah. 1989. *Talking voices: Repetition, dialogue, and imagery in conversational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ijk, T. 1985.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3. Discourse and dialogue*. London: Academic Press.
- van Dijk, T. and W. Kintsch.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Y: Academic Press.

논문투고일 : 2020년 07월 01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7월 15일
 1차 수정일 : 2020년 08월 11일
 2차 수정일 : 2020년 08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8월 20일

< 要 旨 >

Face행위이론으로 보는 담화의 운영 방법

- 감탄사를 중심으로 -

조영호

본고는 Face행위로 여겨지는 담화 흐름에서 참가자들이 사용한 감탄사의 연구이다. 감탄사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것 과 같이 화자와 청취자 사이의 의견 일치함 또는 감정 표현을 보여주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청자와 화자의 face를 상호적으로 주고 받는 효과를 갖는 담화 요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감탄사에는 화자의 face-saving, 또는 FTA(face threatening act)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감탄사의 기능 중, 말할 권리의 느낌과 요구의 표현은 상대방의 face를 saving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감탄사를 표현하는 방법, 타이밍 및 빈도는 상대방의 face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대화 참가자의 face행동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How to operate discourses based on the Face-Act Theory

Cho, Young-Ho

This is a study of exclamation as used by the participants in the flow of discourse viewed as face act.

Exclamation not only shows agreement or an expression of feeling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as studied so far, but also is a discourse factor that has face-effects from listener to speakers face. So to speak, Exclamation has functions to save, threaten or neutralize speakers face. Especially, among the functions of Exclamation, expression of feeling and demand of the right to speak have a function to save the others face. And also, the methods, timing and frequency of expressing Exclamation can be used as ways of face-effects to the other, which are applied directly to face act by the participants in a conversation.